그 사람 지금은

(42) 이영일 前 국회의원 〈하〉

94년 '北에 따뜻한 햇볕 필요' 주장…DJ와 인연

이영일(68) 전 국회의원은 광주직할시 승격과 비엔날레 개최 등 참신한 공약과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 13대와 14대 총선에서 거푸 고배를 마셨다. 평민당 바람 즉 '황색 돌풍' 때문에 광주 서구에서 정상용 전 의원에게 무너진 것이다.

"1988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민정당, 1992년 치러진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단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운이 나빴다고 본 것이죠"

이 전 의원은 정치휴면기인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간 일본 츠쿠바(筑波)대학 역사인류학계에서 국제정치, 특히 공산권의 체제변동을 연구하면서 일본 열도를 주유천하(周遊天下) 했다. 또 1989년에는 단신으로 국교도 없는 중국을 방문, 천안문 사건 이후의 중국사회상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1992년 총선 이후 벌어진 14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종찬 후보 편에 섰다.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정국을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만들어 버린 김영삼씨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요. 그래서 반 YS의 선봉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삼 후보가 정책 연설을 거부하는 등 경선이 기형으로 치닫자 이종찬 후보가 불만을 품고 경선 이틀 전 포기하고 탈당하면서 민자당 경선은 불발됐다.

이 전 의원은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된다.

"16대 총선때 동교동계 구파에 의해 5공 세력으로 몰려 공천서 탈락"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1994년 북핵문제가 대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 언론에 '북한을 겁주지 말고 따뜻한 햇볕으로 녹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을 실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모양이요. 그 뒤로 통일문제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가까워졌죠. 그리고 이종찬씨와 함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위해 신당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15대 국회에는 입성했다. 1997년 8월 당시 원내총무를 맡고 있던 신기하 의원이 항공기 추락 사건으로 사망, 광주 동구 보궐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박태영 전 지사와 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와 공천을 받았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이 보궐선거에서 저는 상대 후보가 중도 사퇴, 무투표 당선돼 10년여 만에 의사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의원은 1999년 6월엔 집권당의 대변인이 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직접 지명에 의해 새정치국민회의의 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침체한 국정분위기를 일신하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인 2000년 16대 총선 공천에서 또다시 탈락했다. 대신 김경천 당시 광주 YWCA사무총장이 공천을 받았다.

"3선의 중진이자 집권당의 대변인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공천권을 쥐고 있던 동교동 구파들이 광주시민단체들과 제휴, 저를 5공 세력으로 몰아 광주지역 낙선대상자로 낙인찍은 것입니다. 공천심사위원들도 모르는 공천탈락이었습니다. 호남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는 심사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동교동계에서 일방적으로 공천했기 때문이죠. 당시 김경천씨가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정가에서는 이희호 여사가 YWCA 출신이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리와 고 조아라 여사가 강력 추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를 배제하기 위해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동교동계라는 같은 식구가 아니어서 배제된 것뿐입니다"

그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지만 결국 패배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좌절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했다.

"정치에서 은퇴하고 그동안의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남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긴장과 경쟁 속에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삶을 섬김과 봉사의 길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우선 평소 막후에서 지원하던 한민족복지재단의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의료지원을 넘어서 북한어린이들에 대한 무료급식사업을 실시했다.

"평양 동성동에 빵 공장을 건립하고 매일 평야 근처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150g 상당의 소보루 빵을 나누어주는 사업(사랑의 만나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영일 전 의원(왼쪽)이 지난 2005년 11월한중문화협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계 은퇴 후 섬김·봉사의 길 걸어 北 어린이들에 무료급식사업 전개"

이 전 의원은 2002년 3월에는 한민족복지재단 사업을 국외로 확대시켜 수난의 땅 아프가니스탄에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아프간 어린이 의료지원단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 북부 마지리 샤리프 지역에서 수많은 어린이에 대한 의료지원활동을 벌였다. 2003년 7월에는 두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수로비지역에 관개사업을 지원했다.

그는 후학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호남대, 한라대, 한성대 등에서 민주주의론·북한학·동아시아 국제관계론·한국정치론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요즘 매주 화요일은 전주 우석대 테크노대학원 초빙교수로 국제관계론 과목을 강의한다. 또 금요일에는 그가 공동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실에 나간다. 그 외에는 거의 매일 여의도에 있는 한중문화재단 사무실에서 보낸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집이 있는 반포의 헬스클럽에서 매일 수영과 스트레칭을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약 력

▲1939년 함평군 함평읍 출생
▲광주서중·일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11, 12, 15대 국회의원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중앙정치연수원장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특보, 대변인
▲한중문화협회 회장

■ 전라도 역사이야기 -장성 방울샘

제봉산 사잇골 오동촌의 '鈴泉' 물색깔로 나라길흉 예측說도

스산한 가을, 낙엽이 떨어져 샘물에 떠 있다. 장성읍 영천리 오동촌 방울샘을 찾아간다. 마을 어귀 길가 돌기둥에 '호남명승영천입구'라 적혀있다. 동쪽 골짜기를 따라 500m를 접어드니 봉황(황새)산과 고경명 묘가 있는 제봉산 사이골인 오동촌 윗뜸 가운데 샘이 있다.

오동촌(梧桐村)은 약 400년 전 여양진씨가 터를 잡은 뒤, 김해김·금성나씨 중심의 250여 호 대촌이었으나, 지금은 반으로 줄었다. 방울샘(鈴泉·영천)은 둘레 15m, 높이 2m, 수심 1m 안팎으로 1864년 대동지지에 소개됐다.

영천은 연중 14~15℃의 수온을 유지하며, 식수원이면서 문전옥답 300 두락의 젖줄이다. 1872·1899년 읍지에는 기우제 터로 기록됐다. 1927년 읍지에는 "샘의 맥이 드러나는 모래 에서 수많은 방울이 떠올라 '영천'이라 했다. 물색의 적백(赤白)으로 세상일을 표하고, 청탁(淸濁)으로 한 해를 점쳤다. 샘 안 물고기는 모두 오른 눈이 멀었고, 다른 물에 있던 것도 이 샘에 들어오면 눈이 먼다.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 반드시 해를 받으므로 서로 경계하고 침범하지 않았다"는 글이 있다.

방울샘은 용이 승천한 소(沼)로 물빛이 변해 나라의 길흉을 예측한다고 소문났다. 갑오농민전쟁·광복·한국전쟁 때 붉은 물이 솟았고, 70년 전 질병이 온 마을에 퍼질 때는 검붉은 물이 나왔다고 한다. 풍년이 들 때는 쌀뜨물 색이 되며, 물 마신 뒤 임신하면 훌륭한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전남기념물 제186호로 지정된 방울샘.

1931년 영천수축실적비를 통해 장성면이 공사비를 후원했고 주민대표 나정숙·김규현, 면장 변승기가 건립사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옹달샘 주위로 5~6단의 석축을 쌓고, 가운데 영천을 음각했다.

1972년 보수하고, 1978년 하루 40톤 규모의 용천수를 바탕으로 한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됐다. 1991년 재정비 때 대리석으로 윗부분을 쌓고, 바닥에 자갈을 넣었다. 주변에 수령 320년생 느티나무와 함께 전남도지사를 지냈던 김재식씨가 만든 '쌀의 집'도 있다.

마을공동체 행사로 샘제와 당제를 지냈다. 정월보름마다 주변 샘제를 지내고, 마당 밟기와 풍물 굿이 이어진다. 2006년 장성국악협회 주관으로 방울샘제를 지내기도 했다.

전남대학교 허민 교수는 방울샘의 물색깔과 관련, 석회암층 안에 쌓여있던 철 성분들이 풍화하면서 가끔 적색 물로 변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원래 장성 땅은 고생대 설옥리층에 석회암이 다량으로 묻혀있는 곳이다. 이를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1962년 박철웅씨가 시멘트공장을 설립한다. 현재 고려시멘트는 연간 12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